

한국예술 종합학교 신문

2015.12.20.
제259호

1면: 끝
2면: 연극원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3면: 신입생 OT 일정 축소될 수도
4~5면: 방학에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6면: 헤겔의 미학 (2)
7면: 선배가 후배 군기 좀 잡을 수도 있지
8면: 후일담

발행인 김봉린
주간교수 권희철
편집인 서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관 2층
창간 1996년 11월 28일
전자메일 newskarts@gmail.com
누리집 news.karts.ac.kr



연극원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올림피아를 찾아서〉에서 속출한 레퍼토리 수업의 애로사항, 대자보로 공개질의한 학생들, 연극원 측과 면담 후 내규 필요성 제기

지난 12월 11일, 연극원강실에서 레퍼토리 문제 제기 대자보에 관한 긴급회가 열렸다. 레퍼토리 공연은 연극원 교수가 연출하고, 통합 오디션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진행한다. 한동안 우리 학교 곳곳에 붙어 있던 해당 대자보는 레퍼토리 연극 〈올림피아를 찾아서〉에서 야기된 문제들에서 더 나아가 레퍼토리 수업(이하 '공연 A) 자체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며 연극원 측에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본 회의에는 △최상철 연극원장 △박근원 교수 △신연옥 교수 △윤정섭 교수 △공연기획·기술감독팀, 그리고 대자보를 내건 연출과 정해진 씨와 문제를 호 씨가 참석했다. 학생회장 외 다른 학생들도 참석이 가능해 회의를 지켜보았다. 긴급회를 시작하기 앞서 최상철 원장은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 자리는 연극원 공연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해진 씨가 건의한 사항은 총 5가지였다. 첫째는 '레퍼토리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년도 2학기의 경우 레퍼토리 공연은 1200만 원을, 학생들이 주축인 스튜디오 공연은 16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공연기획팀은 "[지원금의] 기준이 적힌 자료는 분실된 상태"이며 "이전의 예산 부분이나 공연 내역서를 바탕으로 선례에 따라서 [지원금 배급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다"며 "영수증은 매번 행정실에 제출하고 있고, 기획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레퍼토리 할 때 예산을 십 원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서 예정과나 기획자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영수증

은 학교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행정실에서 검사를 한다"며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상철 원장은 "예산 편성권은 원장이 갖는 게 아니라"라며 "예산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공연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공연위원회하 교수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둘째는 레퍼토리 수업의 교육환경 문제다. '공연 A라는 이름의 이 수업은 졸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인 데 반해, 교육의 일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변했다. 정해진 씨는 과의 교수가 연출을 맡다 보니, 다른 과 학생들이 지도과정에 있어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에 "공연마다 각 파트 별 담당 과수를 두어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 교수는 "연기와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움직임을 선행을 찾았었"지만 "협력교수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며 "독단적으로 혼자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협력 교수가 동원돼] 해피한 연출도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연출도 있다", "연출하는 학생에게 혼란스러거나 자신이 정한 프로덕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협력 교수 체제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연기기획팀은 "[지원금의] 기준이 적힌 자료는 분실된 상태"이며 "이전의 예산 부분이 공연 내역서를 바탕으로 선례에 따라서 [지원금 배급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다"며 "영수증은 매번 행정실에 제출하고 있고, 기획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레퍼토리 할 때 예산을 십 원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서 예정과나 기획자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영수증

션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관련 학칙을 마련해 학생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피아를 찾아서) 연출이었던 민 교수는 "사건 협의에 관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영상 촬영에 대해서 "처음에 연습 스케줄에 대해 얘기할 때 영상과 무대가 결합된 이야기"이며 "영상작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촬영 작업을 해야지 된다"고 공지했음을 밝혔다. 또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도 있'었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며 개인 작업은 오해라고 답했다. 더불어 "영화제에 내든지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곳 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화는 후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상영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건 사기"라고 판단했다며 영상 촬영에 대해 사전 협의가 어려웠던 점을 고백했다.

이 논의에 이어 정해진 씨는 넷째 사항인 수업 이외 작업에 따른 정당한 페이 지불에 대해 덧붙여 물었다. 이에 민 교수는 "[학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한테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너희에게 돈을 줘야지 되는 게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박 교수는 "공연기획실과 상의해서 학생들이 오디션을 보기 전에 공연 이후의 촬영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관한 것들을 분명히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째 건의 사항은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 문제다. 정해진 씨는 "교수 학생 사이가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학생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점들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정섭 교수는 "그런 문제는 명문화되지 힘든 문제고, 연극원 내의 문화가 해결할 일이자 서로 노력할 일"이라고 답했다.

정해진 씨와 문제호 씨의 대자보는 같은 맥락이었지만, 문제호 씨는 특별하게 "연극원은 극장 사용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그 선례를 제시하라"고 건의했다. 〈올림피아를 찾아서〉는 추가 작업을 위해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극장을 사용했다. 수업과 무관한 영상 촬영 작업으로 극장 사용을 연장시켰다는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공연기획팀은 "극장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선례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례를 살펴보면 "수업 외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연장시킨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레퍼토리는 [선례에 따르면] 2주 정도까지 사용하고 학생들[의 공연]은 보통 일주일이지만 최근 1년 내에 공연 전 주가 길어질 경우 연습실로 사용하게 하면서 2주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해진 씨와 문제호 씨, 선승범 총학생회장과 강덕구 총학생회 정책국장은 면담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내규 연안을 작성했다. 내규 제안서는 18일 연극원 측에 전달되었고, 20일 교수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갔다. 제안서에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규 정립, 레퍼토리 교육 환경 개선, 지원금 배급의 기준 명시 등 10가지 항목이 적혀 있다. 정해진 씨는 "제가 제기한 레퍼토리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을 기초로 총학생회장·정책국장 과 논의를 해 [내규 제안서들] 작성했다"고 말했다.

만만 작품들끼리 묶어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연수동을 전시 공간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각 차마다 요구되는 조건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작품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회의 말미에 윤정섭 교수는 “옛날의 관행과 새로운 요구 사이에 경돈이 아직 안 돼있다”며 “서로 그때그때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건설적으로 연극원 안에 서의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보고한 올해 2학기 활동 내역에 따르면 시간순서대로 9월 △가을예술제 △LGBT 강연 △교학협의회 준비, 10월 △교학협의회(원별 캠퍼스 환경개선, 학내 비민주적 규정 개폐 개선), 강의평가 방식 개선,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교양과목 커리큘럼 보완 등 11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외부 변호사들과 교차처장, 여성활동연구소 등이 모여 현황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토의하고, 이

러 한국판 전시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이라는 카셀에서의 전시까지 그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건 나랑 많이 다를 거예요. 시일이 다르고 나도 당시 패기 넘치던 큐레이터들과 훌륭한 기관의 힘을 많이 받고 성장해서 그런 것이 꺾여진 지금 어떤 형태의 미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이 돼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서” 광고성이라든가 프로듀서로 있다는 핑계까지 “말하는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겪으면서 진지는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제로 진지함’에 대한, 미술로 관심을 복기시키는 언어,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후 PPT와 함께 한국에서의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Ⅱ 코끼리를 생각하다》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열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축소 논란

지난 12월 16일 오후 7시 서초동 캠퍼스에서 2015학년도 2학기 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2학기 총학생회 활동 보고와 결산보고 및 201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논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가 보고한 올해 2학기 활동 내역에 따르면 시간순서대로 9월 △가을예술제 △LGBT 강연 △교학협의회 준비, 10월 △교학협의회(원별 캠퍼스 환경개선, 학내 비민주적 규정 개폐 개선), 강의평가 방식 개선,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교양과목 커리큘럼 보완 등 11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외부 변호사들과 교차처장, 여성활동연구소 등이 모여 현황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토의하고, 이

러 한국판 전시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이라는 카셀에서의 전시까지 그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건 나랑 많이 다를 거예요. 시일이 다르고 나도 당시 패기 넘치던 큐레이터들과 훌륭한 기관의 힘을 많이 받고 성장해서 그런 것이 꺾여진 지금 어떤 형태의 미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이 돼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서” 광고성이라든가 프로듀서로 있다는 핑계까지 “말하는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겪으면서 진지는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제로 진지함’에 대한, 미술로 관심을 복기시키는 언어,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미술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설치미술가 양혜규 초청 강의 열려

레 한국판 전시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이라는 카셀에서의 전시까지 그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건 나랑 많이 다를 거예요. 시일이 다르고 나도 당시 패기 넘치던 큐레이터들과 훌륭한 기관의 힘을 많이 받고 성장해서 그런 것이 꺾여진 지금 어떤 형태의 미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이 돼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서” 광고성이라든가 프로듀서로 있다는 핑계까지 “말하는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겪으면서 진지는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제로 진지함’에 대한, 미술로 관심을 복기시키는 언어,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후 PPT와 함께 한국에서의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Ⅱ 코끼리를 생각하다》

이번 방학에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6개원이 추천하는 방학 중 예술 행사

2015년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번 학기도 끝이 났다. 두 달여 간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예술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계획일까? 문화부에서는 6개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른 원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예술행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원 학생들에게 어떤 행사를 추천해 주었는지 살펴보자.



△ 제1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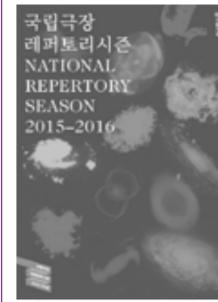
연극원: 《제1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와 《돌꽃이 인큐베이터 워크숍》, 《야합플레이》

전미진(연극원 연극학과 예술경영전공) 씨는 교회 행사와 교내 행사를 각각 따로 추천했다. 교회 행사로는 《제1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를 추천하며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아동청소년극은 우리 학교 연극원 전문사에 전공이 개설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지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르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아동청소년극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는 2016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돌아온 박첨지》 등 5개의 공연을 공식초청했으며, 《8시에 만나》 등 6개의 공연을 올해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패키지를 통해 총 5작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도 있다.

교내 행사로는 《야합플레이》와 《돌꽃이 인큐베이터 워크숍》을

꼽았다. 전 씨는 “방학 동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연으로, 학과일지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연극을 만들 수 있다. 또, 미리 공연 프로덕션을 경험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돌꽃이 인큐베이터 워크숍의 경우 심사를 거쳐 한 작품을 선정해 교외극장에서 《돌꽃이 정기공연》으로 상연하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한다. 전 씨는 “방학 동안 교내에서 다양한 연극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꼽으면서,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연극인 만큼 보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분위기로 학교 정기공연이나 외부 공연과는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씩 연극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 겨울 《돌꽃이 인큐베이터 워크숍》과 《야합플레이》는 2016년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각각 《소우개》 등 5편, 《다윈의 거북이》 등 4편의 공연이 선정됐다.

무용원: 《2015-16 국립극장레퍼토리시즌 〈기본활용법〉·〈칼 위에서〉, 《MISO: 배비장전》



△ 《2015-2016 국립극장레퍼토리시즌》포스터



△ 《배비장전》 포스터

이다은(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전공) 씨는 《2015-16 국립극장레퍼토리시즌》 작품 중 교차공연으로 편성된 〈기본활용법〉과 〈칼 위에서〉를 추천했다. 이 씨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을 “2012년 도입되어 침체된 국립극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극장의 ‘부활’을 가능케 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칼 위에서〉의 류장현 안무가, 〈기본활용법〉의 조용진 안무가 모두 주목받는 젊은 무용수로, 특히 조용진 안무가는 〈기본활용법〉 초연 이후 국립극장의 2016년을 여는 레퍼토리 작품으로 새로 무대를 꾸민다는 데서 무용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씨는 “무용공연 두 가지를 교차편성해 올리는 극장을 찾아보기 힘든데다, 두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무용을 전공한 무용수와 현대무용 안무가가 생각하는 한국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재미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서울시 강동구 국립극

장에서 진행되며, 〈칼 위에서〉는 1월 20일, 22일, 23일, 〈기본활용법〉은 21일, 23일에 공연한다. 두 공연을 30% 할인된 가격에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테마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다.

김지현(무용원 이론과 무용이론전공) 씨는 무용에 대해 난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배비장전》 공연을 추천했다. 김씨는 해당 공연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인기 있는 작품이고 춤이라는 장르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에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 무용에 기반하여 현대적인 퍼포먼스로 재해석된 창작 무용극”인 《배비장전》은 정동극장에서 2015년 4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공연된다.



△ 지난 2015년 1월 열렸던 《제10회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영상원: 《2016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김영준(영상원 영상이론과) 씨는 매년 1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개최되는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를 추천했다. 김 씨는 서울아트시네마에 대해 “쉽게 말해 영화 도서관이다. 비영리 단체로 시민들과 영화 애호가들을 위해 고전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해당 행사가 서울아트시네마를 후원하는 영화인 및 관객의 추천으로 상영작을 선정한다고 설명하며, “영화인들은 직접 추천한 상영작을 보기 위해 시네마테크를 방문하고, 영화가 끝난 뒤 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다. 감독, 비평가, 관객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아동다운 살아가는 영화마을 주인으로서 혼돈함이 느껴지는 행사다”라고 말

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극장에서 ‘함께’ 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운을 떼며 “너무 많은 영화 광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무 쉽게 영화는 모니터 앞까지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꼭 120년 전 12월 28일, 영화가 탄생한 순간으로 기록된 그 날은 ‘여럿이서 함께’ 영화를 관람한 인류 최초의 날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6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는 종로3가역 서울극장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016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며, 관객들의 선택작 투표 결과 자크 리베트의 《미치광이 같은 사랑》이 최다 득표를 얻었다.

미술원: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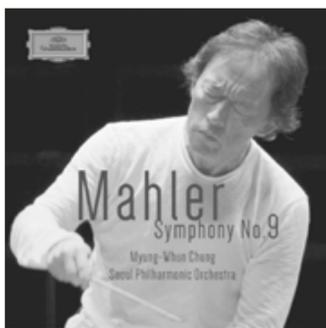


△ 안규철 개인전(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포스터

이누리(미술원 미술이론과)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안규철 작가 개인전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추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2014년부터 10년간 한국 중진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한 지 얼마 안됐지만 국내 현대미술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장기간 공식이던 관장도 최근 선정되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할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는 한국 중진작가들의 대규모 전시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덧붙이면서, “안규철 작가의 개인전은 대형 설치와 영상 신작 8점을 볼 수 있고, 작업 노트를 포함해 작가 아카

이브 자료를 볼 수 있어 작가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미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 전시를 관람할 때 모든 것이 자신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즐기면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면 한다.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는 난해한 현대미술 속에서 미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시”라고 전했다.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는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열려 2016년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음악 공연: 《정명훈의 말러 스펙셜》



△ 2014년 9월 발매된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9번 앨범 자켓

아쉽게도 문화부 기자가 집착한 음악원 학생들은 우연히 전부 연 말연시에 추천할만한 적당한 공연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학기 중 많은 시간을 음악원에서 보겠다는 A씨는 이 자리에 초대해 보았다. A씨가 추천한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의 말러 스펙셜》이다. A씨는 “서울시향은 70년간 뿌리깊게 한국 주류 클래식계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2011년 아시아 교향악단 최초로 클래식 음악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음반 출시 계약을 맺어 지금까지 8장의 음반을 출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A씨는 “서울시향은 많은 논란과도 함께했다. 2011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한 ‘특권적 대우’에 세금이 과도하게 쓰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2015년에도 정명훈 예술감독의 업무능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명훈 지휘자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 서울시향은 여타 공연단체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직접 만나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라고 추천 이유를 덧붙였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지난 8월 서울시향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이미 정해진 2016년 9회의 정기공연은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공연 관람에 대해 “고전 음악이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비교적 유명한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투쟁적인 음악세계로 알려진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접해보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명훈의 말러 스펙셜》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1월 16,17일 양일 공연한다.

전통예술원: 《평룡(平弄): 그 평안한 떨림》



△ 《평룡(平弄): 그 평안한 떨림》포스터

김은정(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씨는 현재 공연 중인 《평룡(平弄): 그 평안한 떨림》을 추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콘서트”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공연은 전통예술과 현대적인 사운드, 이미지를 접목시켜 참신하고 독특하다. 2014년 관객 만족도 최고의 공연으로 국악의 본질을 절묘하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하면서도 세련됨과 완벽함을 포기하지 않는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공연의 의미를 설명했다. 관람 시 주목할 점을 묻자 김 씨는 “7개로 구성된 레퍼토리 안에는 음악과 더불어 ‘신라 해시계’와 별자리를 형상화한 무대 위에 3D 프로젝션 맵핑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영상과 음악의 조화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전통공연에 관심은 있으나 어려움을 느

낀다는 타원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이 공연은 꼭마다 해설이 짧게 있어 이해하기 쉽다. 지루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전통공연이 이 정도로 세련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고 말했다. 《평룡》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2015년 12월 4일 개최되어 12월 27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후일담

한 학기를 마치며

강은주(편집부)

이번 학기는 '그냥' 힘들었다. 미술원 디자인과 학생으로서 제품, 시각, 인터랙션 세가지 전공의 수업을 모두 들은 나의 욕심인가... 싶기도 하다. 중간 중간 후회도 했던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 이렇게 그냥 아무생각없이 몇일 밤을 새고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바라보니 마냥 나빴던 것만은 않은 것 같다. 2학년은 자유롭게 보낼 것이다. 신문사를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한것도 큰 이벤트 중 하나이다. 학교 신문사일을 하면서 기사를 접하고 편집을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만의 신념과 감성을 느끼기도 하였고 학교 내외의 사건들을 보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곽소진(사진부)

덕분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었다. 어떤 일들은 '시선을 모아주기'가 필요한 것 같다. 학교 신문사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신문사 덕에 눈에서 레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의 눈 비스므레한 것을 흉내내본 한 학기라고나 할까요. 한 학기 동안 사진 부장으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일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뻐다. 이렇게 좁고 추운 공간에 자발적으로 모인다는게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다. 학교에 신문사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16장의 빈 면이 생긴다.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그렇다고 합니다...

권리임(사회부)

1학년 입학마자 신문사에 들어오고 4학기 켜다. 글은 쓰면 쓸 수록 어려워지고 나는 작아진다. 이번 학기에 4학기 만에 부장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이었다. 누구를 책임질 정도로 무언갈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학기 동안 많이 감쌌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학기가 지났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남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방학이 왔으니 방학이나 실컷 즐기고 책도 많이 읽은 다음에 다시 글 쓰러와야지.

김민지(편집부)

신문 편집이 있는 금요일이면 그 날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완고는 도대체 몇 시에 될까, 이번에는 어떤 배치로 편집해야하나 그리고 출다고 청일거리는 편집부원들을 어떻게 달래야하나 걱정이었다. 그렇게 스트레스고, 걱정 이면서도 토요일 아침 7시쯤 완성된 '258호 최종_인쇄본.pdf'를 보면 뿌듯했다. 그래서 그만두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또 편집부장을 계속 한다고 한 것 같다. 학교 신문 누가 보냐며 빈정거리는 친구도 많지만 앞으로도 스트레스 받아하며 걱정하고 열심히 밤샘 것 같다.

김소희(편집부)

종이 신문 소비율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급감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이신문 편집 배치의 효과는 웹 형식의 매체가 따라갈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종이 신문의 편집은 독자가 정보

를 얻고 이해하는 맥락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안 내합니다. 또한 종이 신문은 발행 부수와 판매부수의 통계를 통해 독자의 수를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매체가 가진 힘입니다. 신문을 읽는 것으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종이 신문 편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집부 소속 교열기자로서 우리 학교 신문 독자 여러분에게 종이 신문이 가진 힘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지우(대학부)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문지우. 동생의 이름으로 닉 달 정도를 살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수많은 남들을 만나고 수많은 남들이 내 글을 읽는게 무서웠습니다. 예상대로 남의 이야기를 남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쓰니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피로도 무섭고 추위도 무섭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무겁고 무겁고. 남의 이름을 쓰고도 저는 눈을 감고 손을 묶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지 않아서 이름이 벗겨지고 얼굴이 드러나고 수많은 남들의 눈 앞에 벌거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시인의 이름도 아니고 필명도 아니고 한 글자 차이인 동생의 이름을 골랐을까요? 어쩌면 두 글자만큼은 고개를 내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미(편집부)

학기가 끝날 때는 늘 아쉬움만 남는 것 같다. 마구마구 일들을 벌인 2학기 종강을 앞둔 지금, 나는 내가 벌인 일들의 의미에 대해 계속 곱씹어 보고 있다. 내가 이번에 벌인 것들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하는 신문사 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신문사 편집 일을 하며 나는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내 감각을 의심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현재진행형 인 것 같 혼자 생각해 본 다기도 ...) 되-게 상투적이고 진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런 고마운 분들을 알게 되고 읽는 사람들을 조금 더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나.

백석(대학부)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 보려고 일을 시작했다. 전공만 믿고 무작정 신문사에 지원했다. 그렇게 취재부 기자가 되었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신문사에도 학교에도 제법 적응했다. 입사할 때 문학과 기사의 공통점에 대해 말했던 적이 있다. 문학과 기사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1996년은 백석 시인이 죽은 해이고, 내가 태어난 해다.

서안(대학부)

대학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학내외의 많은 일을 마주했다. 신문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마주칠 일이 없었을 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취재 활동이 언제나 즐거웠다고 할 순 없다.

때로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려야 했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을 보도를 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모두가 무관심한 사안이라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난처함도 감당해야겠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모두에게 설득하는 몫도 기자의 역할일 것이다. 독자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소식에 대신 다가가는 일은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더 나은 신문을 만들도록 하겠다. 다음 신문에서 봅시다.

서이다(국장)

이때때 신문사 편집실에 앉아 있다가 흰 입김을 볼 때마다 번쩍 놀라곤 한다. 손가락에 더 이상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은 지는 오래 되었다. 학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상과 목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긴 논쟁과 토론 뒤에 이제 무엇이 남았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걸 전하거나 해석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때 언제나 마주치는 질문: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신문을 만드는가? 신문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릴 수는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손승희(문화부)

일촉즉발의 순간으로 채워졌다. 3년 넘게 어영부영 미루다 이번 해에 학교 신문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 만족한다. 매주 글을 정리하는 것이 생활에 일정한 리듬을 갖추게 도와준다. 하지만 역시 요즘 석관동 생활에는 권태를 느낀다. 나와 친구들이 이제 정말 '미래로' 내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안신호(문화부)

언제부턴가 삼사 년에 한 번 주기로 블로그에 몇 년간 모아둔 글을 전부 지워버리곤 한다.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결국은 연말이 되어서 야 깽판을 쳤다. 학교에 들어온 뒤로 업무나 과제 말고는 의식적으로 긴 글을 잘 쓰지 않게 됐다. 현재를 납득하기가 무척 괴롭기 때문이었다. 당장 할 일 이외의 생각을 길게 붙들고 있는 지 오래되었고 그 점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최선을 다해 과거와 절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는 현재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침묵하거나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신문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나는 믿고 있다.

이상연(대학부)

"우리 학교에는 기사를 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학기 대학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다만 사건으로 정형되지 않은 채로 산재한 수 많은 부딪힘과 갈라짐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종의 일들을 사건으로 만들어 내는 분노와 행동을 잃었다. (그리고 수업에 갈 힘도 잃었다.) 나는 몇 학기째 그 이유를 궁금해 했지만 궁금해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이제는 미래에 내가 투덜거리고 있지만 양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를 쓴다는 것은 투덜거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장윤서(편집부)

춥다. 배고프다. 손이 얼 것 같다. 다리가 시리다. 발이 저러온다.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척추가 아프다. 이빨이 흔들린다. 안경이 자꾸 내려간다. 화장실에 가고싶다. 에어캡을 다리에 두르고있다. 전혀 효과가 없다. 점점 추워온다. 여긴 밖과 온도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밖이 더 따뜻하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었다. 나에겐 들리지 않는다. 너무 춥다.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것 같다. 타이핑치는 손톱이 아프다. 손톱을 보니 길다. 손톱을 잘라야겠다. 방금 편집을 마쳤다. 난 이제 입대한다. 신문사를 관둔다. 아쉽다. 춥다.

임근홍(대학부)

나는 수습기자다. 학기 중에 상시 모집으로 신문사에 들어와 정기자가 되지 못했다. 대학부 소속으로 한 달에 두 개의 기사를 썼다. 나는 언젠가부터 진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2000자를, 4000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쓰는 것은 글자의 수효였다. 나는 무엇을 쓰고 있었지만 써야 할 무엇을 쓰지 않았다. 단 한 개의 기사도 그러지 못했다. 한 학기가 지났다. 겨울이 되자 신문사 건물은 더 추워졌다. 수습기자는 월급으로 10만원을 받는다. 나는 통장에 찍힌 10만원이 너무도 무거웠다. 한 달 전 내 통장에 16만 원이 찍혔다. 정기자가 되었고 나는 6만 원의 무게를 잃어갔다. 오늘은 생일이다. 잃어질 게 하나 더 늘었다. 나는 언제나 깎두기로, 견습생으로, 발 딛지 않은 자로 살고 싶었다. 이제 발을 디디야 하는데 나는 다시 발을 뻐다. 아마 '수습'의 딱지는 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수습'기자다.

정의현(학술·비평부)

좋은 분들과 한 학기 동안 신문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독자분들께도 이러한 마음이 전달 되었는지 궁금한데, 학술 비평 부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을 느낀 한 학기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 다음 학기에도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 읽어주시는 독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홍지수(부국장)

일 년 동안 나의 금요일 저녁 일정은 항상 신문사였다. 그동안은 정말 신문 만드는 일을 즐기게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만나게 된 무수한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 세상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다. 사실 신문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상기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매체다. 올해 학교 신문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이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었기를 바란다.